

금요 양성 2026년 1월 30일 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)

권고들에 집중 (5)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7-fa-ed-1-page-131>

[5. 아무도 교만하지 말고,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것입니다.]

¹오 사람이여,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대로, 그리고 영으로는 당신과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,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. 창세 1,²⁷

²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창조주를 그대보다 더 잘 섬기고 인식하고 순종합니다. ³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, 바로 그대가 마귀들과 함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, 그대는 아직도 악습과 죄를 즐기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.

⁴그러니 그대는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⁵실상 그대가 “모든 지식을”¹ 고린 13,² 가지고 있고, “모든 언어를”¹ 고린 12,²⁸ 해석할 수 있고, 또 천상 일을 날카롭게 깨뚫어 볼 정도로 예리하고 명석하다 할 지라도,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. ⁶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, 한 마리의 마귀는 그 모든 사람보다 천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, 지금은 지상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^a

⁷이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생겼고 더부유하고, 또한 기적들을 행하여 악령들이 달아난다 해도, 이 모든 것은 그대에게 해가 되고 그대의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안에서 아무것도 그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.

⁸오히려,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“연약함”² 고린 12,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매일 지는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루카 14,²⁷

형제회에서, 파트너와의 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해서

- + 이 권고에서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- +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습니까?
- + 겸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?
- + 겸손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강점을 숨기려 합니까?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?